

임신월령(9개월)에 따른 임산부 체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영숙†, 김은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The Observation of the Shape Changes in 36th Week of Pregnancy Woman

Young Suk Lee†, Eun Jung Kim‡

Department of Clothing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 서 론

현대 사회의 산업화 추세로 인해 여성 노동의 증가 및 여성의 사회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임산부 여성도 일반인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 의복에 관한 연구 방향은 정상 체형의 중년, 장년, 노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뿐 임신 시기가 한정되고 한정된 시간속의 체형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인지 만족스러운 규격 치수와 등급 구별이 마련되어 있는 자료가 미미하다. 이에 임신기 여성중 만삭에 가까운 9개월된 여성의 체형을 body로 만들어 파악한 다음 pattern을 제시하여 좀 더 활동적이고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Body 보정

임의의 정상 체형 body를 임산부 체형 분석에 맞추어 어깨, 가슴, 배, 등, 엉덩이의 형태를 중심으로 pad와 솜을 이용하여 표 1의 항목의 치수가 되도록 보정하였다.

(단위:cm) 표 1. 정상체형과 임신 9개월과의 첫수변화표

항 목	정상 체형	임신 9개월
가슴 둘레	86.5	95
허리 둘레	67	79
엉덩이 둘레	98	112
등 길이	39	41
어깨	35.5	35.5
둔부 길이	19	22.5
유쪽	16.5	18.5
배 깊이		27
앞 중심	52	56

그 후 사진 1과 같이 line tape를 이용하여 앞 목점에서 수직으로 늘어 뜨린 앞 중심선, 뒷 목점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뒷 중심선, B.P점을 고려하여 가슴의 가장 둘출된 부분과 수평이 되도록 두른 가슴 둘레 선, 엉덩이 둘레 선, 배의 굴곡과 거의 평행하게 비슷한 분위기로 두른 옆선과 프린세스 라인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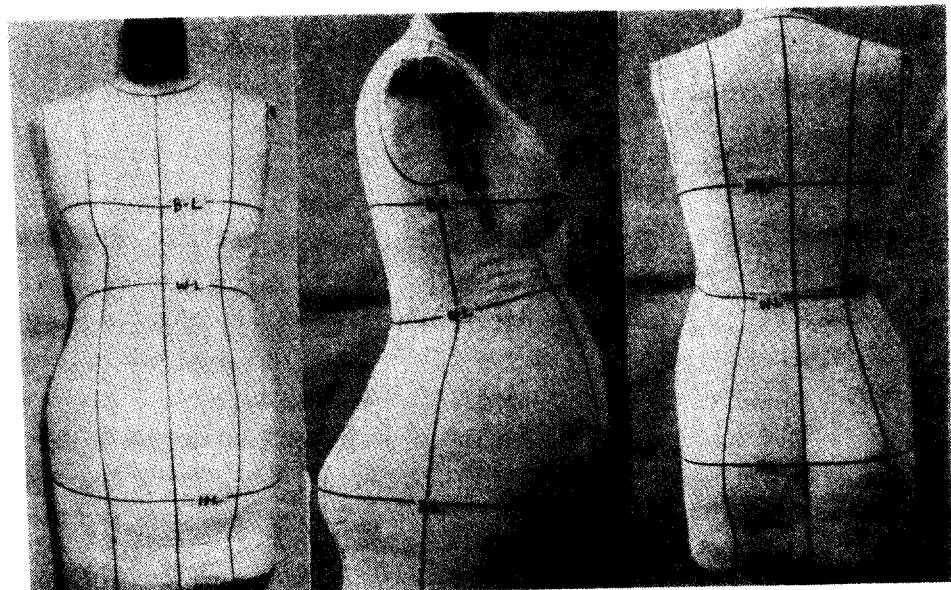


사진 1. Line tape를 이용한 여러 선의 표시

2. 체표면 뜨기

Body에 wrap을 감고 유리 테이프를 붙인 후 라인 테이프의 기준선대로 다시 기준선을 표시하여 사진 2와 같이 절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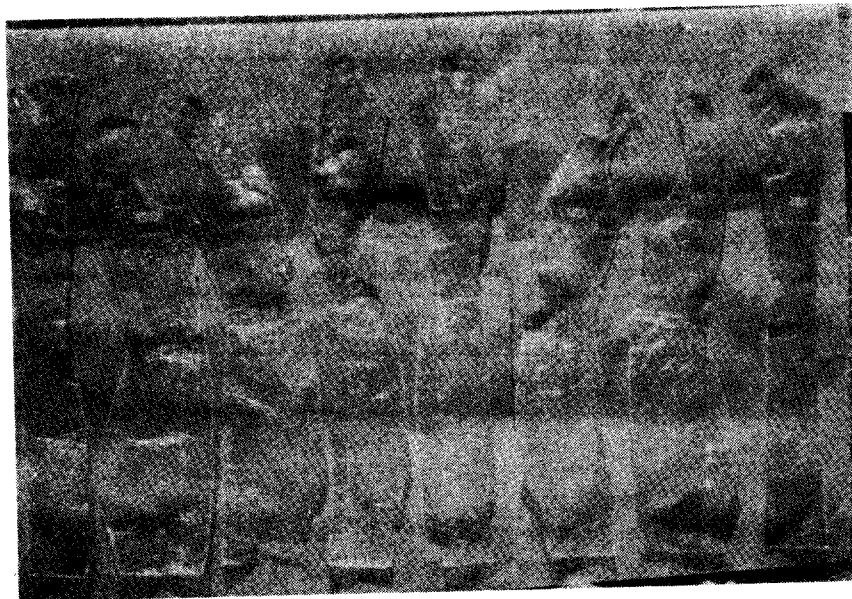


사진 2. 체표면 뜨기

III. 결 론

1. 정상체형과의 체표면 비교

절개한 체표면을 돌출부위를 없애도록 다시 절개하여 평면화 시킨 후 정상체형의 체표면과 비교한 것 중 먼저 오른쪽 앞면을 보면 (사진3), 임신으로 인한 어깨의 굴곡으로 약간의 여유분이 필요하고(1-a) 임신부의 체형은 유방의 밑부분부터 불어오므로 다아트의 여유분이 들어가며(1-b) 정상체형과 가슴의 가장 불룩한 부분을 맞췄기 때문에 깊게 휘어져 여유분이 생기므로 의복제작시 고려해야한다(1-c). 또한 배가 불룩 하기 때문에 2-b에도 많은 여유분이 생겼고 복부 팽만으로 인해 앞중심선이 정상보다 길어졌으므로 엉덩이 들레선의 많은 하향이 보인다. 따라서 패턴제작시 가슴과 배의 팽만으로 인한 더 많은 앞처짐이 필요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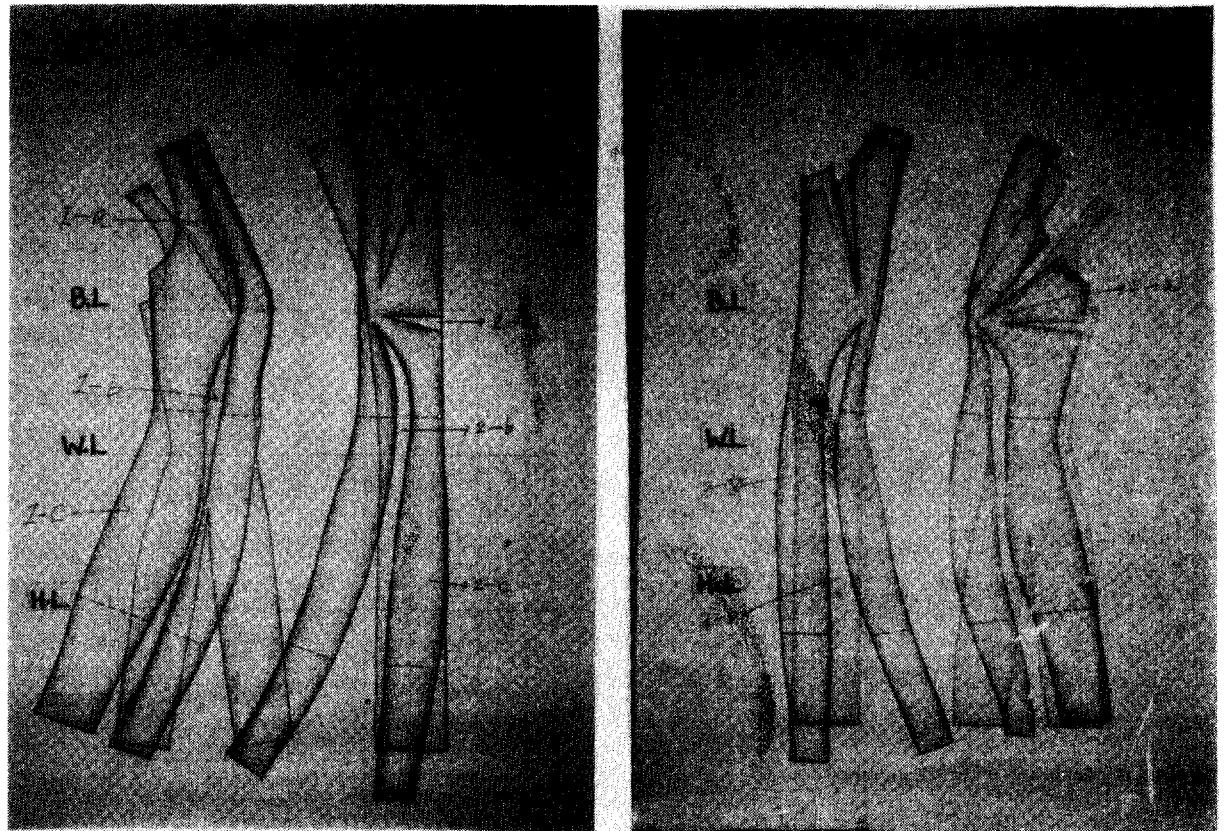


사진 3. 임신 9개월 체형단면(右 앞)

사진 4. 임신 9개월 체형단면(左 앞)

왼쪽 앞면(사진 4)에서는 목선에서 앞 중심의 끝을 맞추어 그 결과 복부의 평만으로 인하여 3-a부분이 정상체형과는 달리 생긴 것이고 3-b는 의복제작시 여유분으로 계산 해야 할 분량이다. 임산부의 밀가슴둘레의 분량이 정상체형보다 더 커 가슴다아트 분량은 정상체형보다 더 적으며 의복제작시 허리다아트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듯 하다 (4-a).

뒷면의 왼쪽을 살펴보면 (사진5), 임신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로 전갑골 부분이 불특하게 되어 전갑골을 중심으로 다아트분이 들어갔고(5-a) 반신화로 인해 옆선이 정상체형 일 경우 수직이 되지만 임산부의 경우는 앞으로 이동한다(5-b). 또한 허리 중심부분과 전갑골부분의 반신화로 정상체형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많은 다아트분이 필요하며 (6-a), 임신으로 인한 비만으로 정상체형보다 엉덩이 부분에 많은 여유가 필요하다 (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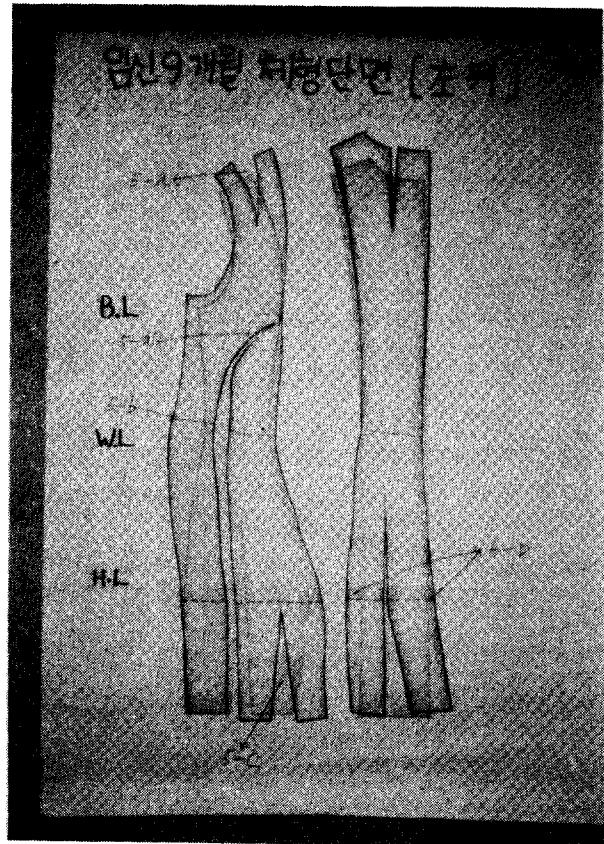


사진 5. 임신 9개월 체형단면(左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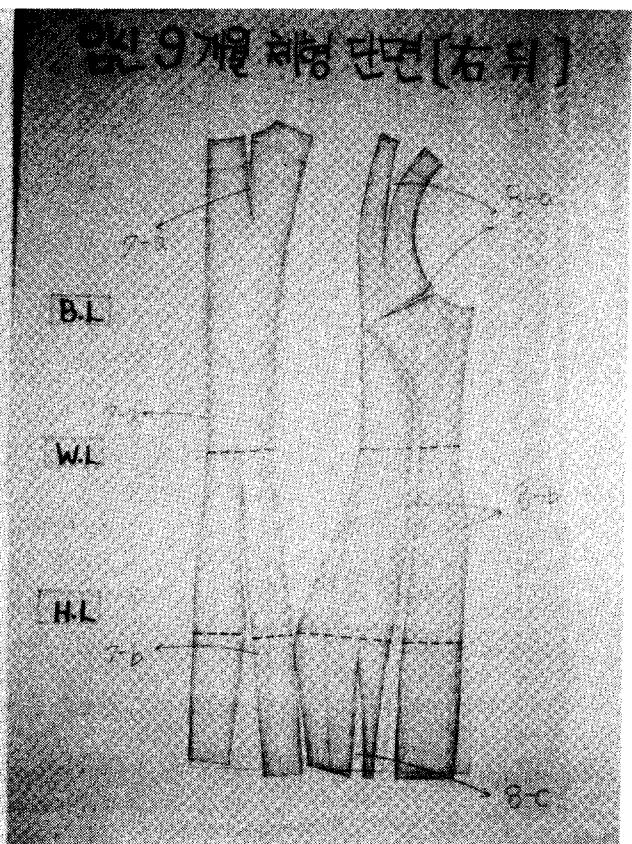


사진 6. 임신 9개월 체형단면(右 뒤)

사진 6의 뒷면 오른쪽을 보면 원쪽과 마찬가지로 반신화로 인해 허리가 들어가고 나와 다아트분이 필요하다(7-a). 엉덩이부분(7-b)도 원쪽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6-b) 8-a의 절기에 따른 여유분은 5-a부분의 다아트부분을 분산시켰다. 8-b는 엉덩이 부분의 비만으로 여유분이 필요하다.

2. 원형 보정

도체은자의 원형을 기초로 하여 임산부의 변화의 특징에 따라 그 차수에 따른 원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 패턴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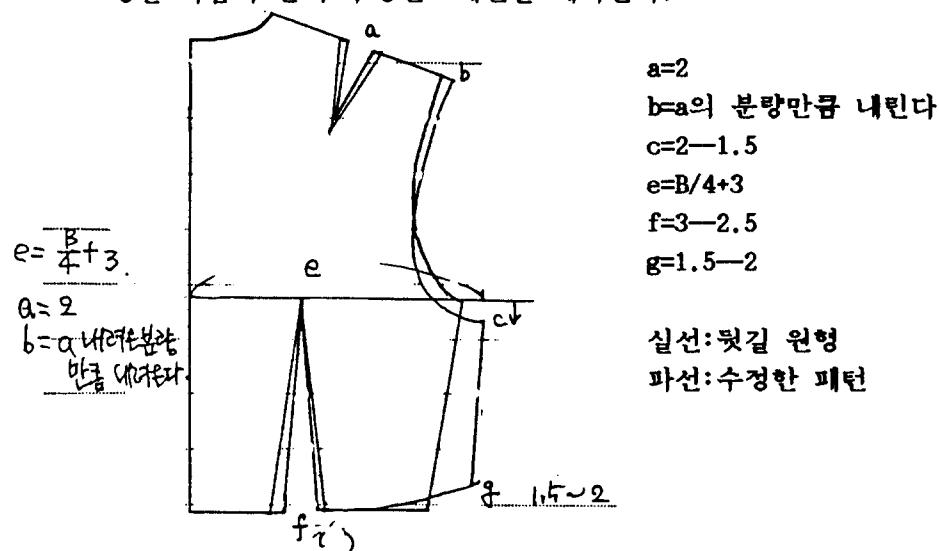


그림 1. 뒷길 비교

등의 반신화로 어깨다아트a의 분량이 깊고 넓어지고 늘어난 다아트의 분량만큼 b부분에서 어깨선이 하향이동한다. 늘어난 가슴둘레로 인해 진동둘레가 c처럼 크고 넓어지며 가슴둘레가 길어짐으로 전체적인 길의 나비e가 커진다. 등의 반신화로 허리다아트f의 분량이 커지며 허리선의 상향이동으로 g의 위치가 위쪽으로 박여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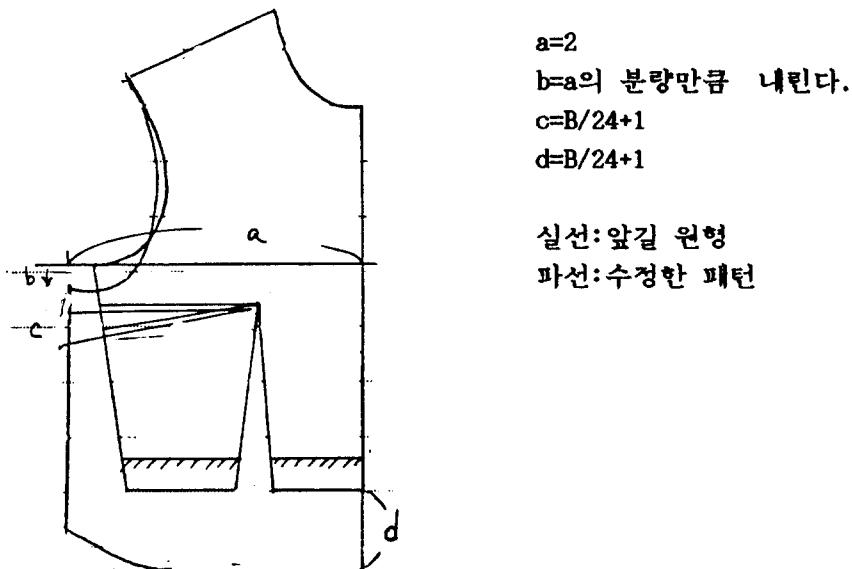


그림 2. 앞길 비교

참고문헌

Teruko Tamura, A Longitudinal Study on the Body Form of Pregnant Women,

J. Home Economics of Japan, Vol. 32(6), 472-478, 1981.